

**공군,
F-5 업그레이드 계획 재검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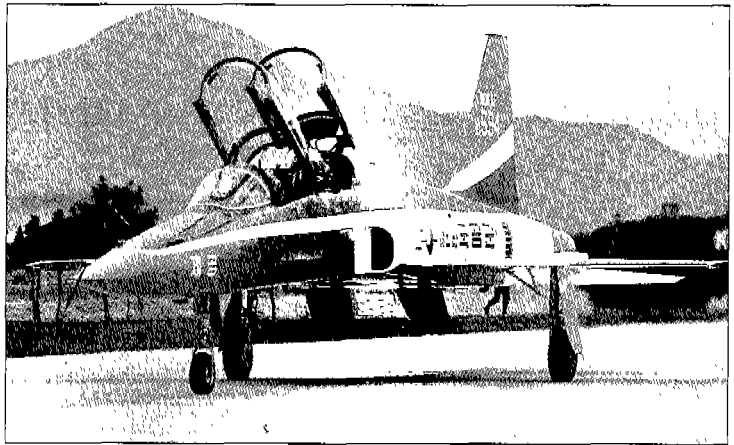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공군은 오랫동안 거론되어온 노드롭사가 제조한 F-5E/F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및 구조개량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.

산업계는 공군이 올해 안에 새로운 제안 요구서(REF)를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. 정부의 최종허가가 주어진다면 동 계획은 잠정적으로 '98년에 최초 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.

공군은 동 기종의 구조와 수명 연장, 전자장비의 개선을 단일 개량사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. 전자장비 시스템의 교체는 새로운 다파장-도플러 레이다와 관성항법장치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(head-up display)를 포함하게 된다.

국방 관계자에 따르면, 공군은 초기 약60대의 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150-200대에 달하는 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.

재 거론된 동 계획은 우리나라의 주요 항공우주 제조업체들대 우중공업, 대한항공(KAL), 삼성항공의 관심을 끌고 있다. 이들 3개 업체는 이미 거론된 적이 있었던 동 계획에 있어서 외국 업



한국공군은 F-5전투기의 수명연장과 전자장비를 개선할 계획이다

체와 제휴계약을 맺은바 있다.

**유로파이터 EF2000, 판보로
에어쇼에서 최초로 선보**

지난 '92, '94 판보로 에어쇼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유로파이터 EF2000이 '96년도 에어쇼에 최초로 공개되었다. 총 3대와 실험용 1:1모델이 전시된 이번 판보로에어쇼에서는 동 기종의 시범비행도 있어 이번 에어쇼는 흡사 유로파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한 4개국(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)의 독무대와 같은 인상을 남겼다.

유로파이터개발에 참여한 참가국들은 각국의 정부와 군측이 동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하고, 관람객들에게 전투기 실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.

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최근 난

항을 거듭하고 있는 독일의 예산 감축 결정과 생산 투자의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. 동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의 자금지원 지원은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의 공군에게는 더욱 불쾌한 소식이 될 것이다.

**모의 비행 끝내...
록히드 마틴 JSF기에**

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차세대 통합공격전투기의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(JSF/STOVL)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물의 86%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리프트 동력을 이용한 모의 비행시험과 풍동시험을 끝냈다고 한다.

이 시험은 미공군이 개발을 원하고있는 차세대형 전투공격기로

단거리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할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. 동사는 이번 시험에 의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이 보였다고 전하고 있다.

신뢰성 배증 미공군 B-2폭격기 시험

미공군은 날개비행기 모양의 B-2스피리트 폭격기에 대하여 300 비행시간당 한번의 비율로 약 70개의 액세스 패널을 열고 1,200개 이상의 부품을 점검하는 비행시간 중간단계 점검(FTBPI)을 실시해 오던중 최근에는 400시간에 한번으로 시간 간격을 확대했다.

B-2 폭격기는 '94년에 시작된 시험비행에서 200시간마다 실시하던 점검을 '95년에는 300시간까지 늘림으로써 신뢰성이 증가되었다. 이로써 정비비용도 크게 절감 되었다고 한다.

한편, B-2기를 운용하고 있는 미조리주 하이트망 공군기지에는 최근 록웰사가 개발한 GAM이 배치되었다고 전한다. GAM장치는 2꼬리부분에 GPS(관성유도장치)와 가동핀을 장착하여 탄도 수정이 가능한 장비이다. 이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투하한 폭탄의 절반이 떨어지는 원의 지름 즉, 반수필증한계(CEP)가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해도 약 6.1m이내까지 향상된다는 것이다.

미 공군에서는 2000년까지 MD사가 개발하고 있는 정밀유도폭탄과 통합직접공격무기(JDAM)을 배치할 계획인데 GAM은 그때까지 쓰이게 될 것이다.

걸프 스트림 V제안 미공군 VIP수송기에

미공군은 C-137B에 대신할

VIP수송기로 소형 VC-X를 선정하고 있는데 걸프스트림사는 현재 개발중인 걸프 스트림V를 제안했다고 군사 소식통이 전하고 있다.

소형 VC-X의 요구조건은 승객 12인, 승무원4인이 타고 속도는 마하0.8정도로 약 7,600km의 항속거리를 지니고 1,500m가량의 활주로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있다.

걸프 스트림V는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데 라이벌로는 봄바르디어사의 챌린저 604와 프랑스 닷소사의 닷소 팔콘 900ex, 그리고 보잉사의 B-737-700의 VIP사양등이라고 한다.

한편 한때 아이젠하워와 케네디 대통령을 태웠던 C-137B형 VIP수송기는 금년 6월 시애틀에 있는 보잉 비행박물관에 수용되었다.

기다립니다

월간 항공우주는
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
정보전달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
제시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
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, 협회 및
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
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
편지자에게(전화 : 761-1104 윤병한)
보내주시십시오.
채택된 원고는 소정의
원고료를 드립니다.

정기구독안내

본 항공우주지는
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
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
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.
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
원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
신청해 주십시오.
1년간 구독료는 12,000원입니다.
담당 : 남 주현
■전화 : 761-1101
■FAX : 761-1175